

신 호남 3당 정치 시대 .. 설 민심이 가른다

6월 지방선거 정치권 지형변화·정계개편 좌우
지방분권 견인할 단체장·지역의원 선출 과제
시대정신·역량·비전 살펴 호남의 미래 선택을

이번 설 연휴 호남 민심의 화두는 '6월 지방선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형성된 호남 민심의 흐름은 지방선거를 관통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지형 변화는 물론 정계개편마저 주도할 수 있어 주목된다.

우선,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에 비해 의미가 크고 넓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함께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가 개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와 함께 하는 개헌은 반대하고 있지만 연내에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늦어도 올해 말에는 지방분권을 토대로 하는 개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 호남 민심은 지방분권을 제대로 견인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전략적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점을 고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정적인 광주 정신에 걸맞게 촛불 혁명으로 표출된 시대정신에 충실한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호남 민심의 적극적 지지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비전'을 갖춘 인사들이 과연 누구냐에 대해서도 냉철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적 스펙을 넘어 시대적 비전을 갖춘 인사들을 발굴, 제3기 민주정부를 지렛대 삼아 호남의 미래를 견인해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계기로 호남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차별 구도를 타파해 호남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 기지로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인물을 발굴, 대선주자 한 사람 배출하지 못하는 '정치적 불일치'의 틀에서 벗어

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현안과 미래에 대한 세밀한 공약 검증은 물론 광주시와 전라도의 상생 공약 발굴, 예비 후보들의 역량과 비전 등을 집중 조명하는 지역 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방선거 참여가 이슈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묻지마 지지'와도 결별하는 등 '공천=당선'이라는 일당 독점의 낡은 구도에서 확실히 벗어나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 민심은 다당제의 길을 만들어 낸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후보의 역량과 비전'을 근간으로 하는 경쟁 구도 형성은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다. 과거 일당 독점 구도의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돌풍은 있어왔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가 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다자 구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경쟁의 여건도 만들어져 있다.

새로운 시대정신과 함께 '역량과 비전'이 호남 민심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는다면 전체적인 지방선거 판도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 포진한 호남민심이 특유의 결집력을 발휘하면서 다자구도 하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캐스팅 보터'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6월 지방선거에 나타난 호남 민심은 정계개편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장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인물 및 비전 부재로 호남 민심의 외면을 받을 경우,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민주당도 공천을 둘러싸고 오만한 자세를 보일 경우, 호남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 기간 형성된 호남 민심이 전체적인 지방선거의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당보다는 역량과 비전, 시대정신에 초점을 맞춘 인물 위주의 선택이 결국 지방분권 시대 호남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복 많이 받으세요”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도 얼마 남지 않았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멀지 않듯이 추위가 맹위를 떨칠수록 봄소식 또한 가까이에 와 있을 것이다. 13일 설을 앞두고 광주 북구 중흥어린이집에서 예쁜 색동옷을 입은 어린이들이 고사리손으로 세배를 하고 있다. 천진난만한 미소와 순진무구한 표정을 보노라면 지난 한해 묵은 때와 아쉽고 안타까웠던 모든 일들은 눈 녹듯 사라질 것 같다. 독자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무술년(戊戌年) 평안과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선고

‘국정농단’ 1심 판결, 신동빈 롯데 회장 2년6개월 실형 법정구속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관련기사 3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안중범 전 청와대 수

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우선 재판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9000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세요

설날 특집 32면 발행
15·16일 신문 쉽니다

광주일보

6·13 지방선거 ▶ 4~8면
평창 동계올림픽 ▶ 2·28·29면
설 연휴 즐기기 ▶ 13~21면
설 TV 프로그램 ▶ 23~25면

설 연휴 날씨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흐림 뒤 맑음	흐림 뒤 맑음	구름 많음	맑음	구름 많음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로자-사틴 스킨, 눈부신 피부의 새로운 기준

헤라 로자-사틴 크림

속은 촉촉하고 겉은 보드라운 장미 꽃잎 같은 피부, 로자-사틴 스킨 섬세한 결계어로 완성한 이상적인 피부 컨디션입니다. 로자-사틴 콤플렉스™를 함유한 크림이 선사하는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결로 메이크업을 더욱 빛나게 하는 최상의 스킨을 경험하세요.

H E R A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hera.com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요금부담)